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022년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부평구립갈산도서관 시행으로 진행된 "2022년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부평구립갈산도서관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서해린
서호
서연우
유은수
이솔
이송연
최현서
최현준

김완태
김은주
유순희
이순희
이인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립 갈산도서관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차례

chapter.1 손주

서해린
강아지 산책 008
괜찮니? 009
모기 010
예쁜 딸 011
눈사람 012

서호
봄이 좋아 013
수박 014
모기 015
참새 016
눈사람 017

서연우
봄 018
아이스크림 테러 019
가지 마! 020
겨울나무 021

유은수
나비 022
토끼 따라 따라 023
매미 024
나무 025
태풍 026
겨울 고양이 027

이솔
강아지 산책 028
벚꽃 029
참외 030
가을에 나뭇잎 031
눈곰아저씨 032

이송연
봄이 뭘까? 034
거미 035
수박 036
곡식군대 037
눈 아이스크림 038

최현서
1년 039
모기 040
계곡 041
가을 사과 042
외톨이 043

최현준
봄의 다람쥐 044
수박씨 045
매미 046
불쌍한 다람쥐 047
첫눈 048

chapter.2 조부모

김완태
우리 은호 050
반딧불 051
여름 052
가을이 오면 053
벼이삭 054
빈 들녘에 허수아비 055
눈 산 056

김은주
봄이 오는 소리 057
소녀시대 058
금붕어 060
여름바다 062
가을 063
겨울나무 064

유순희
배추벌레 065
누가 살고 있을까? 067
여름 노래 068
꿀벌 069
잠자리 070
숨바꼭질 071
소나무 072

이순희
국학 기공 073
베짱이 074
가을 홍시 075
눈사람 076
굴포천 백로 077
아주 어릴 적 이야기 078

이인자
봄날의 산책 080
옛날 생각 081
사과나무 082
군고구마 083
눈에 대한 추억 084
눈사람 085
건망증 086

김완태, 이송연
행복 088
저녁밥 089

김은주, 서해린, 서호, 서연우
할머니는 언제 오실까? 090
할머니 091

유순희, 최현서, 최현준
밥상 092
할머니의 행복 093

이순희, 유은수
행복 094
할머니는 꽃의 여왕 095
손녀 096

이인자, 이솔
손녀딸 097
복숭아 뭐먹을까 098
잠 잘 때 099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chapter.1

손주

강아지 산책

강아지를 산책시키면
강아지가 나무에 올라갈까 봐
걱정 돼

—— 서해린

괜찮니?

주차장에 길고양이가 있었다.
길고양이가 날 보곤 후다닥 도망갔다.
길고양이야, 널 키워주고 싶어
그런데 아빠가 싫어해

—— 서해린

모
기

도둑이 내 피와 잠을 훔쳐갔다.

꿈하고 피가 아까웠다.

다음에 도둑이 가져간 꿈을 가져올 거다.

—— 서해린

예쁜 딸

아빠가 나한테 등을

긁어달라고 했다.

박박 등을 긁어주었다.

"더 긁어줘."라고 말했다.

"아빠 시원해?"

더 빡빡 긁어주었다.

—— 서해린

눈사람

오빠들이랑 눈사람을 만들었다.
주먹만 한 눈덩이를 굴리니까 점점 더 커졌다.
눈을 만지니 손이 차가웠다.
눈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지만
햇님 방긋 비추면 또 너를 만들어줄게.

—— 서해린

봄이 좋아

봄이 되면 개학한다
봄이 되면 학교에 간다
봄이 되면 친구들도 사귄다
봄이 되면 꽃이 핀다

—— 서호

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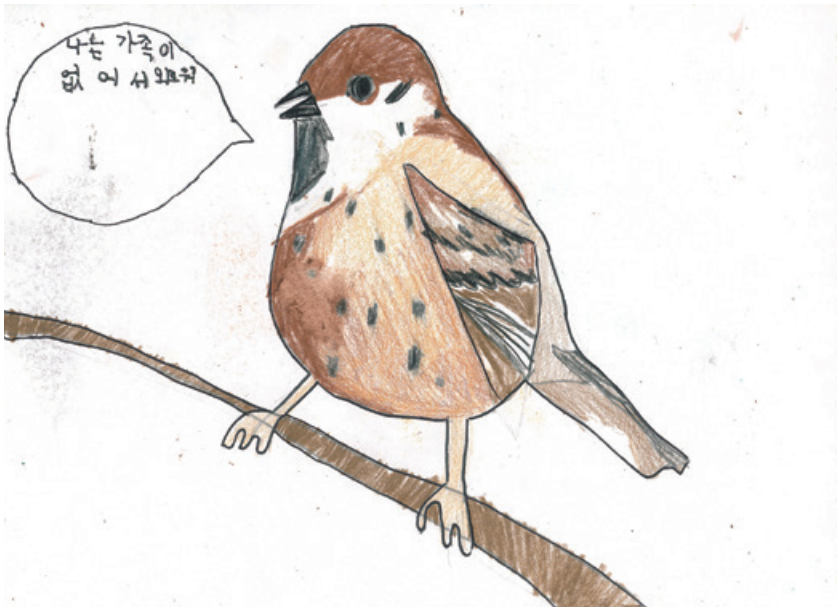
수박을 먹었다
수박을 먹으니
속이 시원하다
눈이 내리는 것 같다.

—— 서호

모기

친구랑 잠자리 잡으러 숲속으로 들어갔다
아 따가워
모기가 내 종아리를 물었다
손바닥으로 짝 때렸다
모기가 죽었다
미안해
그런데 내 다리가 퉁퉁 부었잖아

—— 서호



참새

짹짹
참새가 말한다
나는 가족이 없어
허수아비가 말한다
나도 가족이 없어
우리 친구하자

—— 서호

눈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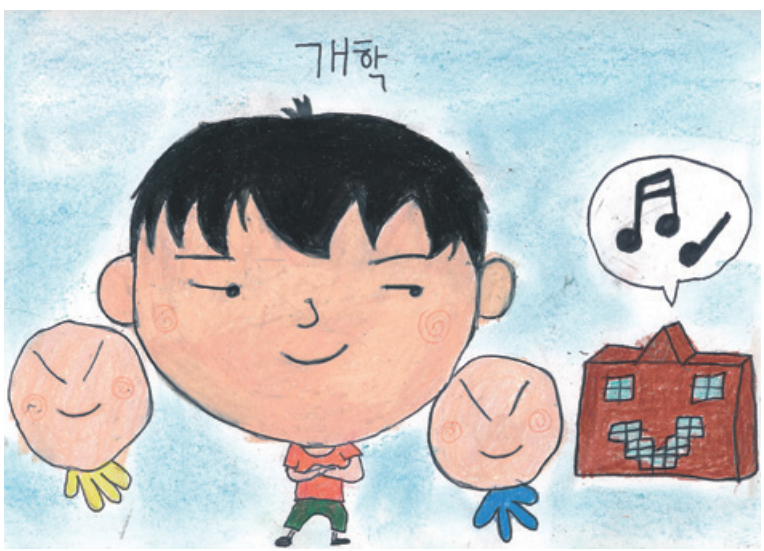
눈사람을 만들었다
나는 눈사람을 집앞에
놔두고 집으로 갔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눈사람이 부서져있었다
눈사람이 다쳐서 슬펐다
눈사람을 집으로 데려갈 걸
눈사람아 미안해

—— 서호

봄

봄은 시작이다.
봄은 사계절의 시작이다.
봄은 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봄은 곤충이 나오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봄은 새학년을 시작하는 계절이다.
나는 시작하는 봄이 좋다.

—— 서연우



아이스크림 테러

친구와 베스킨라빈스에 갔다.
나는 친구와 2개씩 사먹기로 했다.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베리베리스트로베리와
엄마는외계인을 시켰지만,
친구는 민트초코를 시켰다.
치약에 초콜릿을 넣은 맛이 뭐가 맛있지?
다음엔 혼자 와야겠다.

—— 서연우

가지 마!

신나게 놀고 있는데
고추잠자리가 놀러왔다.
친구가 물을 뿌려서
고추잠자리가 도망갔다
고추잠자리야, 가지 마!
고추잠자리가 빨간 단풍나무로 갔다.
어, 어디 갔지?
잠자리가 숨어버렸다.

—— 서연우

겨울나무

나무가 옷을 벗었다,
옷을 입어도 추운데
왜 옷을 벗었을까
내 옷이라도
걸쳐주고 싶다.

—— 서연우

나비

팔랑팔랑 나비가 날아간다.
나비가 꿀 먹으러 최고급 민들레 식당으로 간다.

—— 유은수

토끼 따라 따라

토끼가 깡충깡충 뛰는 걸 보니
나도 토끼 따라 깡충 뛰네 깡충 뛰네
내가 뛰는 걸 보니 사촌동생도
깡충깡충 뛰네

—— 유은수

매미

매미가 맴맴맴
매미는 노래를 연습하나?
야 그러다 목 쉬어!
난 트와이스보다 유명해진 가수가 될 거야
전 세계를 다닐 거야!

—— 유은수

나무

나는 죽기 전에 호주를 꼭 갈 테야!
나이테에 내 지도를 넣을 거야

—— 유은수

태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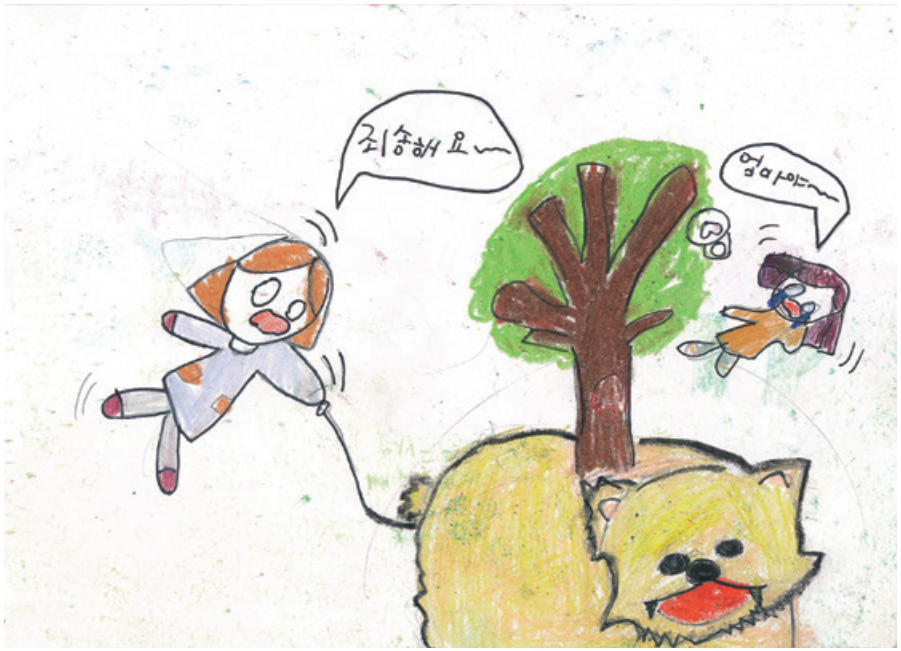
탕탕 바람이 사과를 쏘았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과
많이 다쳐서
피투성이가 됐네
태풍이 오면
피했어야지

—— 유은수

겨울 고양이

야옹야옹 불쌍한 고양이
얼음모자를 썼네
얼마나 추울까?
임신을 했나?
배가 불룩하네
내 용돈이 3000원인데
츄르 하나에 3000원
하~ 알았어 사줄게
핫팩 살 돈을 다 썼네
맛있게 먹어
고양이가 나한테 얼굴을
비비네

—— 유은수



강아지 산책

강아지를 산책시키면
강아지가 신나서
벌벌 떤다.
나도 같이 벌벌 떤다.
왜냐면 강아지가
사람을 놀래킬까 봐.

—— 이솔

벚꽃

벚꽃을 볼 때
가슴이 벌렁벌렁
떨린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진다.
우리 엄마를 안고 있는 것처럼.
벚꽃은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마법나무다.

—— 이솔

참외

참외가 먹고 싶어졌다
그래서 슈퍼에 가서
참외를 샀다
그런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참 외롭다.

—— 이솔

가을에 나뭇잎

가을에 나무가 태어나면 안 된다.
왜냐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
나간다.
나뭇잎이 떨어질 때를 보면
할아버지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거
같다
뚝뚝뚝뚝

—— 이솔

눈곰아저씨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다
아침도 떴다
옷을 입고 장갑도 끼고
집을 나갔다
갑자기! 하얗고
추운 세상으로 왔다
그때 눈곰아저씨가 다가왔다
곰아저씨가 덜덜덜 떨며
나에게 다가왔다
곰아저씨 저희 집에 가요!

내 집으로 살금 살금
곰아저씨 손을 잡고
내 집으로 살금 살금
곰아저씨 손을 잡고
살금 살금 내 방까지 다 왔다
내 방 손잡이를 잡았다
근데 뒤돌아서 보니
곰아저씨는 안 보이고
내 손이 젖어있었다.

—— 이솔

봄이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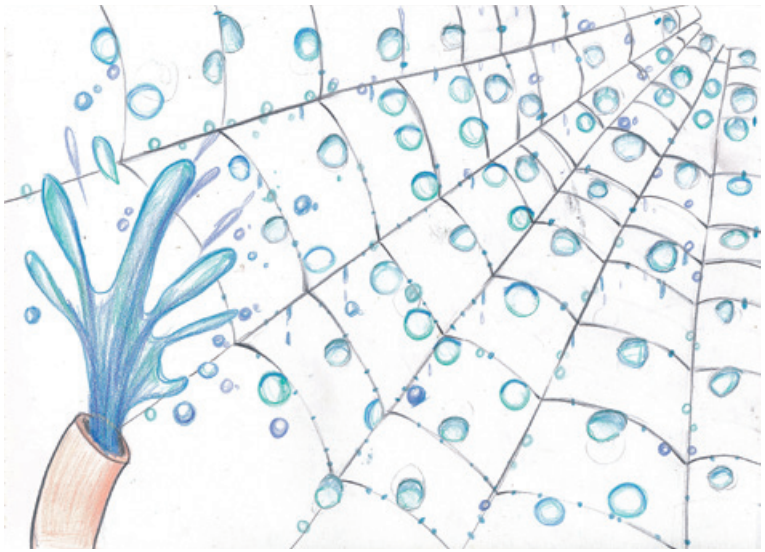
봄은 세상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봄이 되면 새 학년을 시작하고,
새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워.
한 번도 안 해 본 일에 도전해.
다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그게 봄이야.

—— 이송연

거미

우리 집 베란다에
거미가 거미줄을 쳤다.
나는 거미줄을 없애려고
물을 뿌려 댄다.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고
거미줄에 물방울만 걸려있다.
아, 예쁘다.
"거미야, 미안해."

—— 이송연



수박

아삭아삭
냠냠
수박 하모니카를
불다 보면
어느새
동생 얼굴에
수박씨가 묻었다.
톡 웃음이 터졌다.

—— 이송연

곡식군대

가을이라는
전쟁이 시작됐다.
해는 쌀 장군에게
작전을 준다.
과일병사는 용감하게 싸우고
전쟁에서 이긴
쌀 장군은 해 대통령의 칭찬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해 대통령께서 과일군대에게
돈을 주셔서 시장이라는 집으로 이사 온다.
사람들은 집에 와서 햅쌀과 햇과일을 먹으며 전쟁구호를 외친다.
와, 맛있다!

—— 이송연

눈 아이스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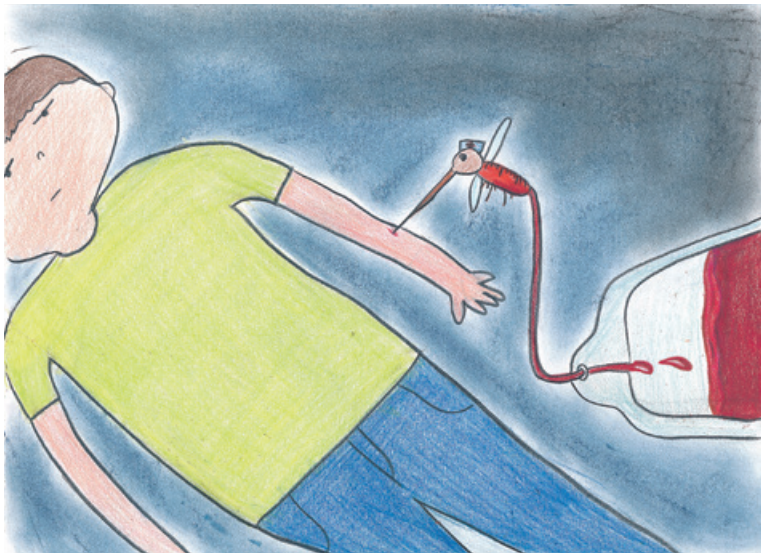
첫눈이 왔다.
나는 마냥 신이 나서
밖으로 나가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다.
눈 아이스크림.
시원하지만 맛 없는 눈 아이스크림.
에이, 하나도 안 팔리겠네.

—— 이송연

1 년

1년 365일 8760시간
나는 봄에 꽃을 피웁니다.
봄이 가자 꽃들은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오고 세찬 빗줄기를 맞더라도,
가을의 강풍과 모진 비를 맞고,
냉혹한 서리와 눈에 온 몸을 맞고,
날카로운 날들이 내 몸을 잘라도,
나는 봄을 기다립니다.
꽃을 피워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길
봄은 기다립니다.
나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 최현서



모기

불을 끄고 눕자
"헌혈하실게요." 한마디
모기가 손가락에 침을 꽂는다.
그럼 헌혈증이라도 줘!
간지러움만 남았다.

—— 최현서

계곡

쏴아아 물소리
매끈한 돌멩이

한참 놀고 있을 때
빡빡이 아저씨가 왔는데

돌멩이처럼 매끈한 아저씨 머리
반짝 빛난다.

—— 최현서

가을 사과

사과가 스스로 빨개졌을까?
사과 안에 햇빛 몇 줌
사과 안에 비료 몇 그램
사과 안에 비도 몇 방울

사과가 스스로 커졌을까
커지는 데 비 몇 방울
또 벌레 몇 마리

—— 최현서

외톨이

난 늘 혼자였다.
외롭고 심심했다.
어느 날 눈이 쏟아졌다.
모든 게 하얀색인데
나만 검은 패딩이다.

놀이터를 지나간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눈사람도
외로이 서있다.

너도 혼자인 거니?
내가 친구가 돼 줄까?
묵묵부답이다.

눈이 오든 어떻든
나는 외롭다.

—— 최현서

봄의 다람쥐

다람쥐야~ 다람쥐야~
봄이 왔어~! 얼른 일어나렴~!
그러다가 네가 좋아하는 도토리를
다른 다람쥐들이 다 먹겠다~!

—— 최현준

수박씨

내가 수박을 먹는데
무언가 딱딱한 게 씹히면
너무 거슬려서
씨가 없는 수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최현준

매미

내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갈 때면
갑자기 조용하다가 갑자기 시끄럽게 울다가
조용했다가
다시 시끄러워져서
너무 짜증이 난다.

—— 최현준

불쌍한 다람쥐

다람쥐가 도토리를 옮기는데
사람들이 도토리를 가져간다.
그래서 다람쥐가 굶는 것 같다.

—— 최현준

첫눈

겨울하면 떠오르는 건?
눈싸움!
겨울하면?
눈사람 만들기!
하지만 나는 눈사람을 잘 못 만들고
눈을 잘 못 뭉쳐
나는 눈 뭉치기랑 눈사람 만들기는
잘 못하지만 눈이 내리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만족해!

—— 최현준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chapter.2

조부모

우리 은호

저녁시간에 은호네 갔다.
제 어미가 낸 수학숙제를 내밀며 같이 하잔다.
뻔한 건데 읽기만 해도 풀릴 것 같은데..
한 문제씩 읽고 풀어 간다.
이젠 너 혼자 해라.
어느새 은호는 연필을 손에 쥔 채 잠이 들었다.
게임이라도 하라고 할 걸..

—— 김완태

반딧불

밝은 낮에는 게으름을 피운 걸까?
너무 더워서일까?
잃어버린 것이 있는 걸까?
어두운 밤에야 등불을 들고 나온다.
게으름을 피운 것도
너무 더워서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같다.

—— 김완태

여름

봄은 종달새 따라 왔다가
뻐꾸기 울음소리와 함께 가버리고
앞산에 뭉게구름 여의고
뜨겁게 달아오른 붉은 해가 우뚝 솟으면
물놀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모깃불 연기 속에 밤은 깊어 갔었지
아스라한 기억들은 그리움으로 변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부질없이 번잡하기만 하네

—— 김완태

가을이 오면

밝은 보름달이 뜨고
서늘한 바람이 불면
손자 손녀 손 잡고 음악회에 가련다.
여름내 땡볕에 온몸을 맡기고
꿋꿋하게 자라서 꽃을 피운 코스모스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손녀 손자 손잡고
뭇벌레가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야외 음악회에 가련다.

—— 김완태

벼이삭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할까?
점점 고개가 굽어지네.
무더위와 폭풍우에 시달려서 굽어지는 걸까?
지난 세월 오만(傲慢)하고 고집센
나의 화신(化身)이 아닐까?
가을은 생각이 겸손해지는가 보다.

—— 김완태

빈 들녘에 허수아비

황금빛 들판의 초병
그 늠름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기우뚱한 몸으로 간신히
빈 들판을 지키고 있구나
스산한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이따금 참새 떼가 날아와서
어깨 머리 위를 마구 어지럽게 해도
멍하니 먼 곳만 바라보고 있네

—— 김완태

눈 산

누군가 먼저 갔네.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이 있네.
누굴까? 산토끼구나.
어! 또 다른 발자국이 있네.
누굴까? 노루가 갔구나.
어! 또 다른 발자국이 있네
누굴까? 멧돼지 같다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

—— 김완태

봄이 오는 소리

사르륵 사르륵 눈 녹는 소리
얼음 녹는 시냇가에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
흙을 뚫고 쏘오옥 고개를 드는 새싹소리
봄바람에 하늘하늘 솔바람소리
내 마음에도 봄이 오는 소리

—— 김은주

소녀시대

비 오는 날 꽃밭에 싱그러운 냄새
아 너무 좋아 행복하다
자연 냄새 하나님 냄새야
나는 말했다
옆에서 친구가 듣고 말했다
너의 그 모습은 소녀 같아
나의 소녀의 감성은 열일곱살
추억의 그때를 떠오르게 한다
꽃분홍 주름치마를 입었던
예쁜 나의 젊은 날로 돌아간다

—— 김은주

금붕어

어느날 우리집에 주황색 금붕어 한 마리가 왔다
외롭겠네! 두 마리를 더하여 3식구가 되게 해주었다
그런데 어느날 한 마리가 먼저 떠났다
남은 2마리는 오랫동안 물속을 헤엄치며
둘이서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날 검은색 금붕어가 주황색 금붕어만
남겨두고 혼자서 먼저 떠나가버렸네~
외로웠을까? 남은 한 마리도 얼마 지나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갔다~

—— 김은주

여름바다

갈매기 날아다니는 바닷가에서
손자들과 찰칵
좋은 추억을 남긴다
하늘하늘 잠자리 날개 같은 옷
나풀나풀 나비날개 색색 예쁜 모자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의 양산
바닷가에서 멋진 사진으로
여름의 아름다움을 담는다

—— 김은주

가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찾아온 가을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준다
더위와 추위 사이에 낀 계절 가을
가을아 네가 있어 좋아
더위와 추위도 이길 수 있어

—— 김은주

겨울나무

겨울이 오니 눈도 따라 온다
나무는 낙엽 옷을 벗고 오들오들 떤다
그런데 흰 눈이 펑펑 내려와서
나무에게 새하얀 옷을 입혀주었다
벌거벗은 나무는 차가운 바람이 싫지만
눈꽃송이 예쁜 옷을 입으니 좋다
낙엽송이를 떠나 보냈지만
눈꽃 옷을 입으니 외롭지 않다

—— 김은주

배추벌레

배추를 좋아하는 배추벌레
매일 조금식 구멍을 내며 먹는다
달팽이도 같이 먹자며 왔다
다 먹지 말고 내 꺼도 남겨줘
달팽이를 잡아서 멀리 놓아줬다

—— 유순희

누가 살고 있을까?

장미가 살금 살금
담을 타고 올라갑니다
저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할아버지 얼굴과 마주친 장미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 유순희

여름 노래

매앰 매앰 맴맴맴
소리를 쫓아가서
나도 예쁜 노래
가르쳐 달라고 한다

—— 유순희

꿀벌

꿀벌은 먹보인가?
오늘도 채송화에서 봉숭아
해바라기에서 나팔꽃으로
날아 다닌다
꿀벌은 아직도 꿀을 더
모아야 하나보다
나처럼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한다

—— 유순희

잠자리

비 그친 하늘에
잠자리들이
강강수월래를 한다
나도 끼려고 했는데
너무 높고 멀어

—— 유순희

숨바꼭질

메뚜기들이 오늘도
숨바꼭질을 한다
찾으려고 하면
볏잎 뒤에 숨어서
발만 살짝 보여주고
나를 약 올린다
언제나 내가 술래다

—— 유순희

소나무

내가 덮는 이불은 언제나 초록색
다른색 이불도 덮어보고 싶었는데
하늘에서 보드랍고 폭신한
눈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런데 햇님이 찾아와서
이불을 가져갔어요
보드랍고 폭신함을
많이 느끼기도 못했는데

—— 유순희

국학 기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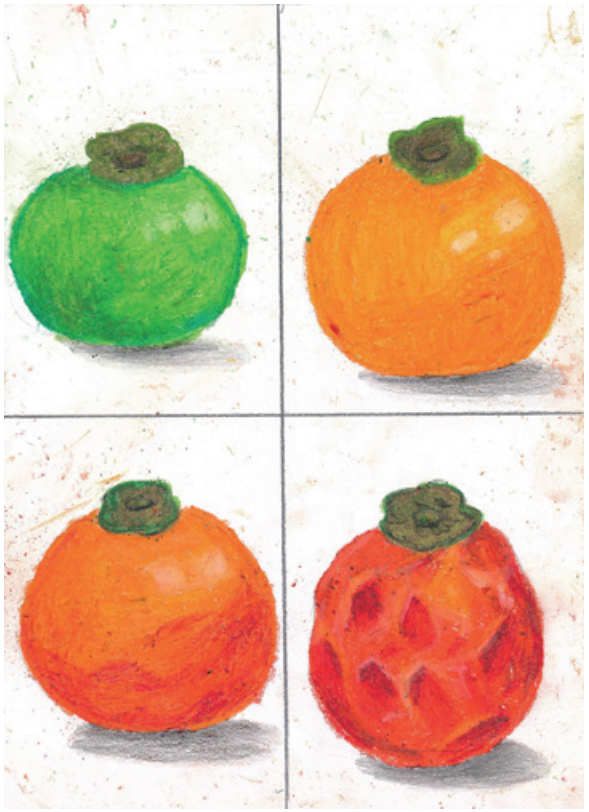
억지로 일어난다
공원에 운동을 간다
샘님이 어서 오세요
내 몸이 근육이 붙는 것 같다
발걸음이 가볍다
공짜로 보약 한 첩

—— 이순희

베짱이

일도 안하고 베짱이
노래만 부른다
찌르르 지르르
노래만 부른다
노래만 부른다
아니 저게 베짱이 일인가

—— 이순희



가을 홍시

가을엔 홍시가 온다.
저게 젊었을 때는 녹색이었다.
저게 젊었을 때는 단단했다.
저게 무르익어 저녁노을 빛깔
저게 무르익어 물렁물렁
나도 저렇게 홍시가 되고 있나.

—— 이순희

눈사람

데굴 데굴 굴려
눈사람을
크게 크게 만들어

숯으로 눈썹 그리고
솔방울로 코도 만들고

햇님이 쨍
눈사람이 녹아버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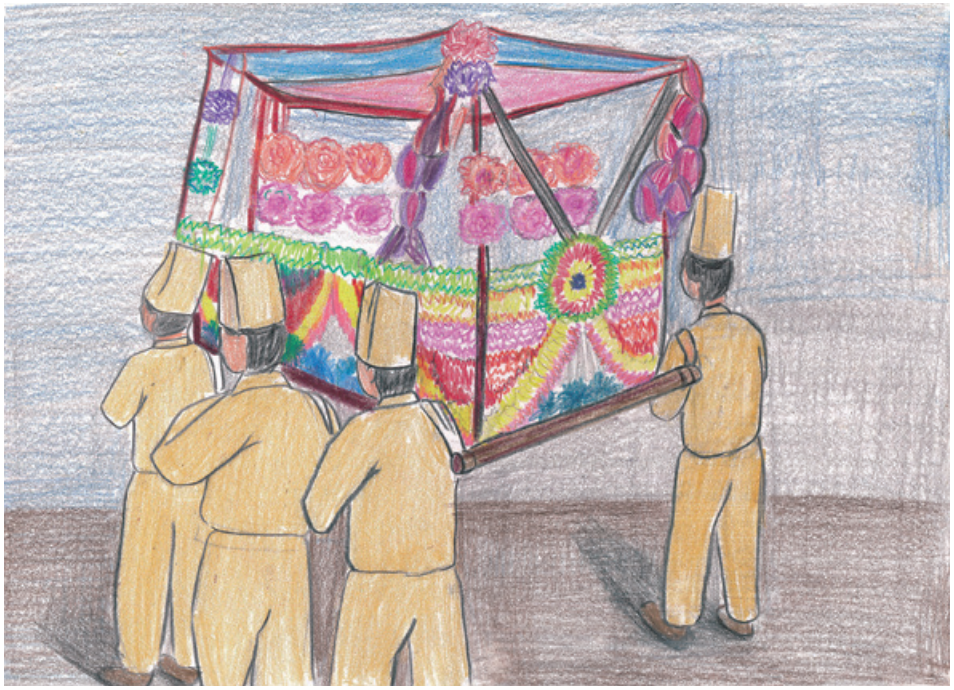
12월 3일 탄생
12월 3일 사망

—— 이순희

굴포천 백로

하얀 백로
차가운 얼음바닥을
걷고 있다.
발이 시려와
발 한쪽을 가슴에
쏙. 따뜻할까?

—— 이순희



아주 어릴 적 이야기

꽃상여가 나간다.
어기어차 어기어차
사람들이 길 위로
지나간다.

뒤쪽 상주들은
마구우 마구우
눈물을 흘리며 운다.

나도 눈물이
그렁 그렁
같이 슬퍼진다.

—— 이순희

봄날의 산책

지나는 길에 언제나 흐르고 있는 굴포천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다닌다.
건너편에 배고픈 왜가리
살금살금 다가가 물고기 한 마리 덥석
옆에 있는 물고기 친구들이 도망간다.
물고기들아, 안 보이는 곳에 잘 숨으렴.

—— 이인자

옛날 생각

엄마가 냇가에 빨래를 하러가신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같이가신다.
우리들도 엄마들과 같이 간다.
엄마들이 방망이로 빨래를 두둘기신다.
우리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메뚜기도 잡고 삘기를 뜯어서 먹기도 한다.
시가 불러온 추억이다.

—— 이인자

사과나무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빨갛게 익는 사과를 먹고싶어서
건드렸더니 툭 떨어진다.
벌레를 먹은 사과였다.
할아버지께서 뒤에서 말씀하셨다.
벌레들은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어.
벌레들이 맛있는 걸 알아보네.

—— 이인자

군고구마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퇴근길에 사주시던 군고구마
인~자야 군고구마 먹으렴
지금은 아들이 사온다
"엄마! 군고구마 드세요."
지나버린 세월들을
어떻게 잡을까요.

—— 이인자

눈에 대한 추억

어렸을 땐 눈이 오면 즐거웠다.
친구들과 눈밭을 뛰어놀기도 하고
새하얀 눈위에 꽃도 만들고
지금은 눈이 오면 걱정이 먼저다.
할아버지 출근 전에 차위에 눈도 치워야지
미끄러질까봐 살금살금 걸어가야지.
지난번처럼 빙판에 넘어져 머리에
혹이 튀어나오면 안되지.

—— 이인자

눈사람

눈이 많이 온 날
현준이가 쬐끄만 눈사람을 만들어왔다.
냉동실에 쬐끄만 눈사람을 넣어놨다.
밖에 놔두면 녹아버리잖아.

—— 이인자

건망증

올망 졸망 세면도구 바구니들이
쭈~욱 늘어져있다.
어제 샤워할 때 샴푸가 떨어져
가져와야지 했건만
신발장위에 올려놓고도 잊고 그냥 왔네
옆자리 동생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내껏도 내꺼 니껏도 내꺼.
우리는 시원하게 웃는다.

—— 이인자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chapter.3

손주 조부모

행복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가 가장 행복해?
우리 송연 공주가 갑자기 찾아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며 안길 때.
우리 공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내가 한 말에 활짝 웃으며
"그래, 우리 송연이가 최고야."라고 하실 때.

—— 김완태, 이송연

저녁밥

할아버지, 갈비 안 드셔요?
할아버지는 갈비탕을 싫어한단다.
에이, 좋아하시는데 저한테 양보하시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이도 아프단다.

—— 김완태, 이송연

할머니는 언제 오실까?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와요?
해린아 밥 먹었어?
할머니 지금 오세요
해린아 학원갔다 오니?
할머니 오시면 우리 포옹해요
해린아 숙제 다 했지?

—— 김은주, 서해린, 서호, 서연우

할머니

오빠, 할머니는 언제가 가장 행복해?
할머니는 너가 말 잘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대.
너는 할머니가 언제 가장 힘들 것 같아?
오빠가 말썽 피울 때가 가장 힘들 것 같다.

—— 김은주, 서연우, 서해린, 서호

밥상

시골 할머니 집에 갔는데
냄비에 무언가가 끓고 있다.

그거 뭐예요?
어~ 수육인데?

요즘 고깃값 비쌀텐데?
아~ 이거 서비스였어.

할머니는 왜 주기만 해요?
우리 손자가 나중에 많이 해줘~

고마워요, 할머니!
저도요!

—— 유순희, 최현서, 최현준

할머니의 행복

할머니, 할머니는 뭐가 제일 좋아?

할머니는 너희가 와가지고
인사 반갑게 해주면서
내가 준비한 거 맛있게 먹는 거.
너는?

저는 할머니가 잘 지내시다
건강하게 얼굴 보고서
시골에서 노는 거요!

—— 유순희, 최현서, 최현준

행복

할머니 언제가 행복했어?
우리 은수가 탄산온천에 써 있는
영어를 쫙 읽어줄 때
예쁜 은수는 언제가 행복했어?
나는 할머니랑 갈산도서관에서 시 쓴 게 제일 행복해용

—— 이순희, 유은수

할머니는 꽃의 여왕

할머니는 나팔같이 생긴
나팔꽃을 알려주시고
해같이 생긴 해바라기도
알려주시고
할머니는 꽃의 여왕

우리 은수는 예쁜 꽃
나팔꽃보다 해바라기꽃보다
더 예쁜 꽃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
은수

—— 이순희, 유은수

손녀

보석 같은 손녀
10시에 수업이 있다 한다.
딸애 전화다.
갈 수 있어요?
가야지, 딸애 부탁인데.

—— 이순희, 유은수

손녀딸

예쁜손녀딸 솔이
웃는 모습이 작은 봄꽃같은 솔이
언제나 명랑하고 친절한 솔이
가끔은 자기물건이나 실내화도 안갈아
신고 나오는 솔이
오빠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솔이
언제나 할머니가 젤 좋다며 안겨주는 솔이
나는 그런 솔이가 나에게는 따뜻한 봄이다.

—— 이인자, 이솔

복숭아 뭐먹을까

솔~아 할머니는 물렁물렁한
물복숭아가 좋아!
솔아 너는?
나는 딱딱한 딱복숭아가 좋아요.
참 다르다,
할머니는 왜 물복을 좋아하냐면
이가 아파서
난 악어처럼 이가 단단하니까
딱복이 좋아요.

—— 이인자, 이솔

잠 잘 때

잠 잘 때 할머니와 꼭 안고 잔다
꼭 안고 자면 할아버지가 질투하신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다
"영감 이제는 당신보다 이쁜 솔이가 더 좋다우."

—— 이인자, 이솔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발행일 2022년 09월 20일

발행처 부평구립갈산도서관

발행인 배창섭

편집인 이혜진

지은이 서해린 서호 서연우 유은수 이솔 이송연 최현서 최현준
김완태 김은주 유순희 이순희 이인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도서관협회

시행 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립 갈산도서관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54

홈페이지 www.bppl.or.kr

디자인·제작 텍스트앤드이미지(@textandimagee)·천일

[비매품]

* 이 책은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 '특화기획(유형특화)'의 결과물입니다.
* 이 책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이 책은 무단 전재와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은 사업 안내 및 홍보 이외에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